전국 제조업 생산 크게 호전

호남지역만 증가율 둔화

석유정제·자동차 생산 줄어…소비심리는 회복 기미

지방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제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호남지역만 제조업 생산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는 3.8% 증가에서 2.4분기는 7.7%로 증가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IT와 자동차 생산 호조에 힘입어 대구·경북권이 1·4분기 7.4%에서 2.4분기 15.2%, 대전·충청권이 같은 기간 6.6%에서 14.8%로 급증했다.

인천·경기권(3.0%→4.4%)과 부산·울산·경남권(1.9%→4.0%)도 조선·철강·자동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소폭이나마 제조업 생산이 확대됐다.

그러나 광주·전라권은 1·4분기 4.3% 증가에서 2.4분기 3.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둔화됐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전남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1·4분기 2.7%에서 2·4분기 0.2% 크게 둔화되면서 전체 제조업 생산 둔화세를 주도했다.

전남지역 제조업 생산이 크게 둔화된 원인은 조선업이 고부가가치선 건조량 확대로 생산물량이 줄어들면서 기타 운송장비업종의 2·4분기 생산이 13.7%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코크스와 석유정제 생산도 7.7%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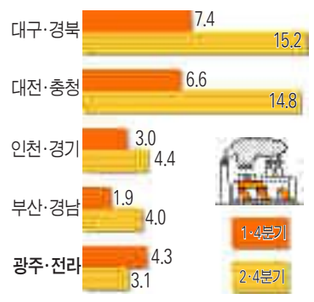
광주는 가전, 타이어의 생산은 늘었으나 자동차, 전기부품 생산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1·4분기 21.8%이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4분기에는 14.7%로 급감했다.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 감소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신차(뉴카렌스) 생산 효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 1·4분기에 급증했던 자동차 생산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7월중 어음부도율도 광주가 0.66%(전자결제 조정전)로 전북·부산·제주·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지만 전남은 0.39%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4분기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광주가 18.4%, 전남이 13.0%로 여전히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제조업 생산 증가율(%)



소비는 대형마트 판매가 1·4분기 27.9%에서 2·4분기 14.8%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백화점 매출도 감소세(-6.4→-3.3%)가 둔화된 반면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생활형편 CSI는 1·4분기 83에서 2·4분기 90으로 개선되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주력업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들 주력업종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경우 생산 증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제조업 생산과 건설투자가 다소 부진하지만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소비가 부진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편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동림2지구 '우미 린' 품평회 성황

입주자 초청 공개 품평행사

단지투어 등 주거환경 체험

우미건설이 광주시 북구 동림2지구 '우미 린'의 입주를 앞두고 지역 최초로 입주자 초청 공개품평행사를 지난 18, 19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아파트는 이광래(73) 우미건설 회장의 의지에 따라 회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형 단지로 조성돼 입주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오는 23일 동림2지구 '우미 린'의 입주를 앞두고 이날 아파트 품평회와 단지투어 등을 실시한 결과 2천500여명의 입주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는 단지투어와 함께 인기가수 및 타악기 연주팀의 축하행사와 장기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또 단지 곳곳에서 열린 즉석 가족사진 촬영, 캐리커처, 마술쇼, 불꽃놀이 행사 등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입주민들은 이번 단지투어를 통해 친환경 고급마감재와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아파트의 면면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대 70m의 동간 거리 및 7천여평 규모의 녹지공간 등 단지 안팎의 각종 주거환경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동림2지구 '우미 린'은 122.05㎡~206.23㎡(36~62평형)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90% 이상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무 한 그루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며 "입주민들 모두가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시 북구 동림2지구 '우미 린' 입주자들이 지난 18일 회사 직원들과 함께 단지투어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본격 가동

1년 9개월만에… 선박건조 시작

21일 용골 거치식, 오늘 '해수굿'

대주그룹(회장 허재호) 산하 대한조선이 21일 해남조선소(해남군 화원면)에서 용골거치식(Keel Laying)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최근 선박건조의 핵심시설인 도크가 준공됨에 따라 유럽으로부터 수주한 1만7천t급 벌크선 HN-1001호에 선박건조의 첫 단계인 용골을 거치한 뒤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2005년 11월 첫 삽을 뜬 대한조선은 1년 9개월여 만에 선박건조를 시작, '글로벌 넘버원' 조선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행보를 내딛게 됐다.

14만 8천여㎡의 부지에 들어선 대한조선은 이미 유럽쪽으로부터 벌크선 16척을 수주했으며, 가동 3년차에는 연간 5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도크에 이어 2·3도크도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로운 건립공정이 진행 중이며 3개의 도크가 본격 가동되는 오는 2015년이면 연간 10조원 이상의 매출과 함께 10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조선은 용골거치식에 앞서 20일 배연신굿과 대동굿의 기능보유자인 인간문화재 김금화 선생을 초빙, 지역민과 함께하는 해수굿 한마당을 갖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용골거치=배의 선수에서 선미까지의 바닥을 받치는 중심 뼈대인 용골(龍骨 : keel)을 놓는 과정으로 배의 실질적 건조가 시작되는 공정. 현대의 조선공학에선 미리 만든 선체블럭을 도크에 앉히는 공정을 말한다.

전국 최고 농촌체험마을 뽑는다

내달 7일까지 신청 접수

우수 농촌체험마을을 뽑는 제 6회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참가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농림부는 오는 9월 7일까지 전국 농촌체험마을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각 시·도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현지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3개의 우수 마을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거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20가구 이상 마을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평가항목은 ▲주민참여 조직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체험 프로그램 ▲농촌체험기반 여건 등이다.

대상마을 1곳에는 상금 1억원, 우수상(4곳)과 장려상(7곳)에는 각각 6천만원, 3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연합뉴스